

# 투자전략 아이디어

## 중국의 위축된 무역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흥국 투자전략

이영원

02) 739-5848

youngwon@

R.A

정상휘

02) 6742-3624

wallstguy@

heungkuk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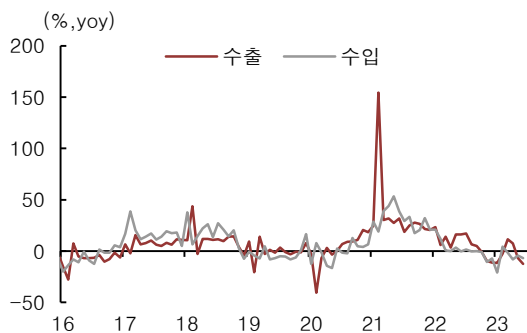
상반기 중국 수출 -3.2%, 수입 -6.7%

중국의 6월 수출입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했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4% 감소,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수입도 6.8% 감소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실적 기준으로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 수입은 6.7% 감소한 것이다.

중국의 부진한 무역은 리오프닝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한 채, 예상보다 중국 경기 회복이 더뎠고 있는 것과 반도체를 포함,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완화되지 못한 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핵심 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중국 수출입의 부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림 1 중국 수출입 증가율



자료: 중국 해관총서,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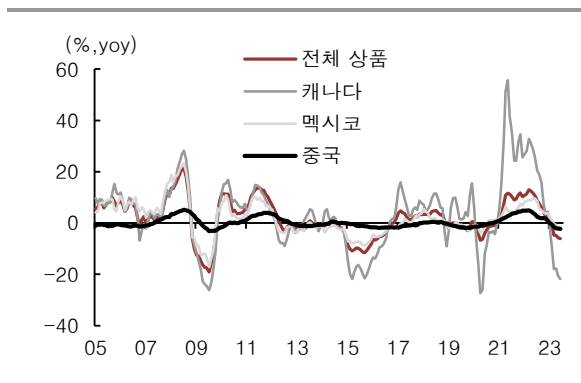
### 중국,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3위

중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지난해까지 1위에서 2023년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3위로 하락했다. 중국이 미국 수입시장에서 첫 1위로 올라선 2007년 이후 지난 2022년까지 16년간 유지하던 점유율 1위에서 하락한 것이다. 공급망의 지나친 중국 의존이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의 중요한 출발점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 하락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제외하고 다양한 소비재의 값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비중하락은 수입물가의 부담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행히 최근 미국의 물가 동향은 소비자 물가의 빠른 하락으로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외 수입물가에서도 에너지 등 원자재 도입가격의 가파른 하락으로 6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6.1%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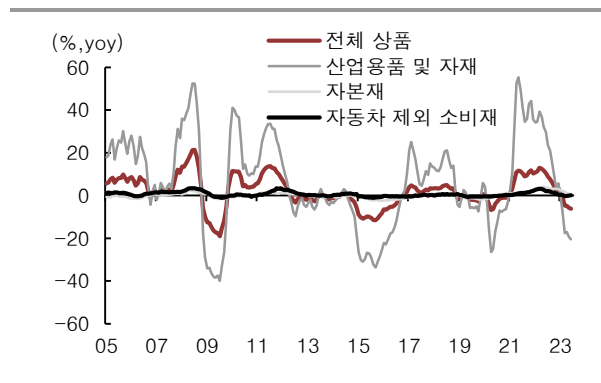
다만 수입대상 국가별 물가 추이를 살펴보면,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수입물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물가에 비해 훨씬 큰 진폭을 기록하면서 향후 물가관리에 상대적으로 교란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부담스럽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비재의 수입물가 동향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물가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렴한 소비재 공급처로서 중국의 영향이 발휘된 결과라 보여진다.

그림 3 미국국 수출국별 수입물가 상승률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미국 분야별 수입물가 상승률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 중국 수입시장의 위축과 대중국 수출 부진

리오프닝 효과의 지연으로 표현되는 중국경기의 부진,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로 확산되는 중국의 애국주의 소비성향 등은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각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중국 수출이 6월까지 26.1% 감소하며 12.4% 감소한 전체 수출규모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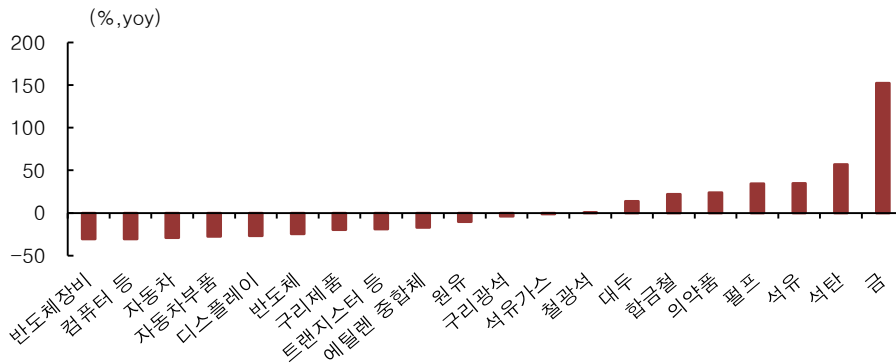
2022년 기준으로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1위~5위 국가들의 경우 대만, 일본,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두 자리 수 이상의 감소를 기록한 반면, 호주 수입의 경우는 +16.8% 증가하며 5위에서 3위로 비중이 상승했다. 10위까지 범위를 확장할 경우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수입규모가 증가했고 독일, 말레이시아는 하락했다. 대체로 원자재 수입비중이 큰 국가로부터의 수입규모는 증가한 반면, 선진국으로부터의 제품 수입은 감소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수입규모 상위 20품목의 23년 5월까지 수입실적 역시 비슷한 양상이 확인된다.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 제품의 경우는 두 자리 수 이상의 감소가 나타났던 것에 반해 금, 석탄, 석유, 펄프, 합금철, 대두, 철광석 등 원자재와 의약품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따라서 중국의 무역 규모 축소에 따른 영향은 선진국의 주력 제품 수출에 주로 타격이 된 반면 BRICs를 포함한 원자재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수입 상위 20 품목 가운데 수출 감소율이 20%를 넘긴 주요 산업들의 국가별 수입규모 증감률을 살펴보면 반도체 (8542)에서는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국 등의 수입 감소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고 자동차 (8703)에서는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등의 감소가,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한국, 일본, 대만의 감소가 뚜렷하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 미국,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감소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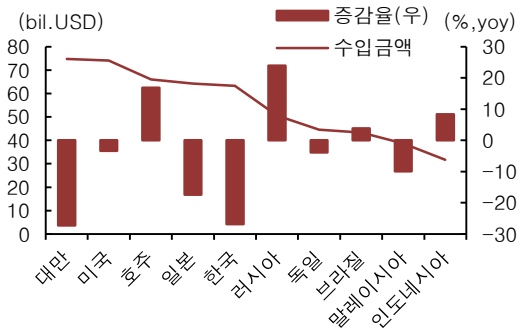
이러한 주력 산업에서 중국의 수입 감소는 해당 산업 수출 비중이 큰 국가에는 중국의 부진한 경기가 이전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상반기 반도체 산업을 필두로 자동차 산업, 반도체 장비,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 다양한 산업이 중국의 부진한 수요와 수입의 감소 영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중국 2023년 5월까지 수입규모 상위 20개 품목 수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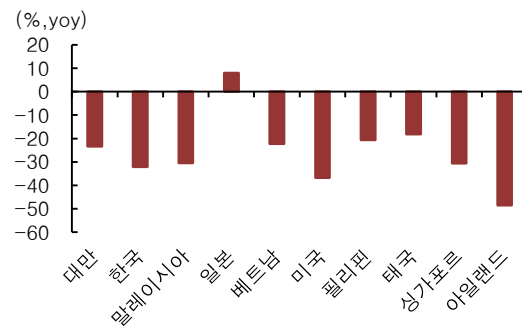
자료 KIT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중국 2023년 5월까지 주요국 수입 규모와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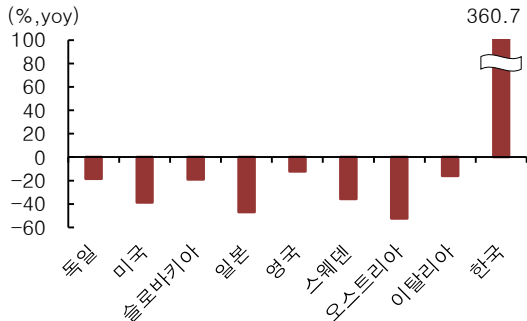
자료: KIT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중국 반도체(8542) 2023년 국가별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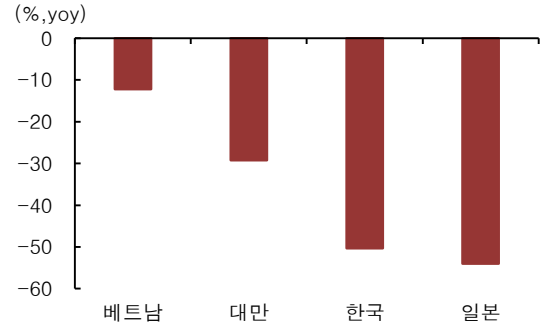
자료: KIT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중국 자동차(8703) 2023년 국가별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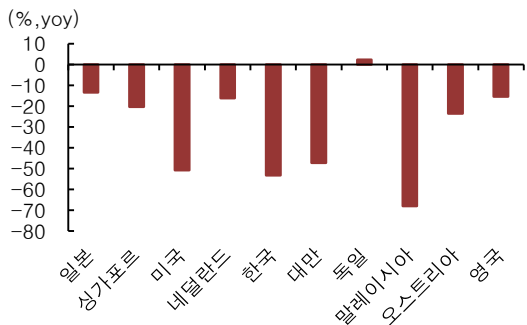
자료: KIT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중국 디스플레이(8524) 2023년 국가별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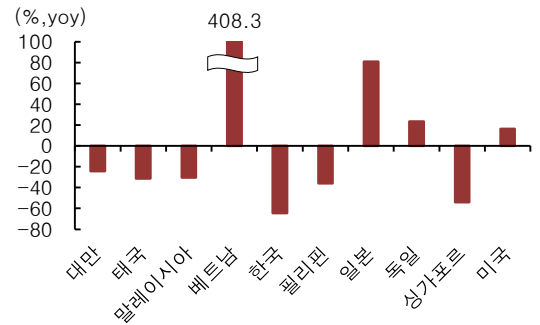
자료: KIT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중국 반도체장비(8486) 2023년 국가별 수출 증가율



자료: KIT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중국 컴퓨터 등(8471) 2023년 국가별 수출 증가율



자료: KIT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현재 상기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동 보고서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는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 발행에 주간사로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는 당사 고객들의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신뢰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보고서가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대여, 전송, 변형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흥국씨앗체**

본 보고서에 사용된 흥국씨앗체는 흥국의 기업철학 모티브를 반영한 글씨체로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독일 '2015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분야 브랜딩 아이덴티티 부문 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친근하고 희망적인 느낌의 흥국씨앗체는 고객존중과 으뜸을 지향하는 흥국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킵니다.